

# 혁신도시 기혼 청년층의 가족동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전입유무별·정주기간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What Factors Influence the Residential Mobility of Married Young Adults with Families in Innovation City? Focused on Comparative Analysis by Migration Status and Residency Period

임 태 경\*\*

Taekyoung Lim

## ■ 목 차 ■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 III. 분석의 방법
- IV. 실증분석 결과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 내 단일 행정구역에 입지하면서 신시가지형으로 조성된 대구·울산·경남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가족동반 유입과 청년층의 가족동반 정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동기요인이 무엇인지를 세분화하여 비교분석 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하여 가족과 함께 이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되는 기혼 청년층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서베이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허들모형을 토대로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의 가족동반 혁신도시 유입에 가장 영향력 있게 작동되고 있는 동기요인이 정주조건에 대한 만족도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및 편의성에 대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8 05119111)

\*\* 계명대학교 조교수

논문 접수일: 2024. 4. 17. 심사기간: 2024. 4. 17. ~ 2024. 5. 30. 게재확정일: 2024. 5. 30.

만족도 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청년층이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전입한 이후 혁신도시 내에 오랫동안 정주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게 작동되고 있는 동기요인은 '자가소유' 형태로서의 주택점유형태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출·퇴근시간 및 경제적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가족을 동반하여 청년층이 혁신도시내로 전입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년층의 가족동반하여 혁신도시내로 전입한 이후에 지속가능한 정주를 이어가는데 비교적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요인이 돌봄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증대를 위해서 국가 또는 단일부처 또는 지자체의 단일 부서가 단일 사업 수행으로 해결하는 접근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세밀한 대책을 수립하는게 필요하며, 중앙정부에서는 민간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에서 가족 전체 이주자 가족의 현지생활 적응을 위한 차별화된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주제어: 가족동반 주거이동, 혁신도시, 청년층의 주거이동, 허들모형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most crucial motivating factors influencing the inflow of young adults with families and their settlement at the innovation cit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Ulsa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nam-do, which are constructed as new towns within the Gyeongsang region, where the family migration rate is evaluated as the lowest. Specifically, This article selected young adults aged 19 to 39 who have migrated with their families due to marriage as the target group for analysis. Based on survey data collected through a survey and hurdle models, empirical analysis results were deriv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st influential motivating factors for the influx of young adults with families into the innovation cities among the youth are satisfaction with residential infra conditions and satisfaction with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of healthcare services such as hospitals or pharmacies. Simultaneously, the most influential motivating factor for young adults to continue residing in the innovation city with their families for a long time after migrating is 'homeownership', indicating a preference for self-owned housing.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probability of young adults migrating with their families to the innovation city increases when satisfaction with commuting time and economic costs is low. Moreover, factors such as satisfaction with childcare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relatively impact the continuation of sustainable residency in the innovation city after young adults with families have migrated. This study suggests that for increasing the rate of family migration to innovation cities in the future, a comprehensive approach with detailed strategies is needed rather than relying on a single department or

agency at the national, regional, or local level.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actively explore and support private-public partnership projects, while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nd implement differentiated policies for activating innovation cities tailored to the needs of young families settling in these areas.

- Keywords: Family Residential Mobility, Innovation City, Youth Residential Mobility, Hurdle Model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이 추진된지 10년이 지났다. “직장이 옮겨가면 젊은 사람들은 모두 따라 간다”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혁신도시 조성정책은 가족동반 이주율의 증가보다는 주말부부 혹은 기러기 생활하는 종사자가 더 많아져 주말이면 다른 지역으로 귀가하는 1인가구와 신혼부부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평이 주를 이루며,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권으로부터 전입은 줄어들고 반대로 전출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되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67.7%를 기록하였는데<sup>1)</sup>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혁신도시의 경우 가족동반이주율이 여전히 49.4%(2022년 기준)에 그쳐 충청북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과반수가 수도권지역에서 여전히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시에 경상남도의 혁신도시의 경우는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동반이주율이 55.5%(2018년 기준)로 그쳐 경상권역 내에서도 가족동반 이주율이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또한 단신이주보다는 가족동반이주가 확산될 경우 지역발전 효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가족과 동반 이주를 고민하는 청년층은 여전히 학교나 교통,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아직 부족해 혼자만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혁신도시내로 가족동반 이주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자녀교육이 조사되고 있는 실정이다<sup>3)</sup>.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혁신도시로 기혼 청년층의 가족동반이주에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 내 단일 행정구역에 입지하면서 신시가지형으로 개발된 혁신도시 사례<sup>4)</sup>에 초점을 맞춰 혁신도시로의 청년층의 가족동반 이주 및 정주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기혼 청년층의 가족동반이주에 대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수도권 혹은 비

1) 연합뉴스 (2024.05.09.)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6023200003>

2) 부산일보 (2024.05.09) <https://www.busan.com/view/biz/view.php?code=2019092622330740249>

3) 경남일보 (2024.05.09.) <https://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407>

4) 경남신문 (2024.05.09.) <https://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96800>

수도권에서 가족과 함께 유입된 사례와 자녀의 유무에 따라 청년층의 가족동반 전입과 정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세분화해 비교·분석하여 청년층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인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혁신도시내에 지속적으로 가족을 동반한 청년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데 실무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 1. 가족생활주기 측면에서 살펴본 청년층의 지역간 주거이동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청년세대의 지역간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선행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주거이동을 설명하는 요인이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청년층의 연령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청년층의 가족생활 주기 상 어느단계에 속해 있는가를 고려하는 접근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 다시말해 청년세대는 개인의 사회진출, 결혼, 자녀출산 및 자녀성장 등 각 과정에 따라 그 시기에 필요로 하는 주거이동 요인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주거이동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Rossi, 1955; Lansing et al., 1957).

구체적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주거환경만족도와 주거이동의향 간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이동의향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이동의향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임준홍, 2021). 또한 청년층은 주거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거이동성향이 강할 수 있고 근로여부, 결혼여부, 자녀여부에 따라 주거이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권정표, 2022). 서인주(2012), 신정철 외(201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결혼, 자녀출산, 자녀성장 등에 이르는 각 과정에 따라 주거의 선호 및 주거가치관의 변화 등 주거이동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권정표·박광수(2023)의 실증분석결과에서도 청년세대의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주거이동의향이 더 높질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 뿐만 아니라 자녀수 등 가족 특성 변인에 따라 주거이동욕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주변환경 및 물리적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부터 가족동반 주거이동이 유도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Onibokum, 1974). 물리적 환경

은 크게 객관적 물리적 환경과 주관적 물리적 환경으로 유형화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의 접근성, 녹지나 공원의 접근성, 지역자원에 대한 접근성 등이 대표적인 객관적 물리적 환경의 예로(Booth et al., 2000; Brownson et al., 2001), 주관적 물리적 환경은 인지적·감정적으로 평가된 주관적인 만족도나 거주지와 관련된 규범에 대한 만족도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징하는 배타성 등이 그 예로 설명되고 있다(Wahl et al., 2012). 이와 관련하여 김현우 외(2020)의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주거이동은 일자리에 대한 자기결정권 그리고 일과 여가의 균형이 확보된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며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얻는 만족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거주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서 생활인프라 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인과관계를 밝히는 실증분석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장욱 외(2001)의 연구에서는 주변의 학교, 병원, 쇼핑시설 등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주거이동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김경수 외(2011)의 연구에서는 교육여건과 교통 인프라를 중요한 주거이동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와 관련해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주거이동으로 인한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확충, 주택공급 확보, 생활 SOC 복합화 정책등이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더불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주거이동은 크게 주택에 대한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노동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동기요인이 크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이중희(200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주거이동은 주거에 대한 이동비용과 주거이동에 따른 편익을 비교했을 때 현재 거주지에 머무를 때 보다 주거이동을 했을 때 이점이 많을 경우 주거이동을 한다고 서술하고 있으며(이중희, 2004), Morrison(2016)의 연구에서는 기존 주택과 관련해서 잠재적 이득을 더 얻을 수 있을 때 이동보다는 체류를 선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Qin(2009)의 연구에서는 거주지 변경에 관련해서 청년층의 이사 빈도가 높을수록 주거이동을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몇몇의 선행연구에서는 현재 공간의 내외부적 특성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이동의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Wals, 2005).

이처럼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동기요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직업적인 환경, 하드웨어적인 생활인프라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청년층의 유입동기 및 정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가족생활주기 측면을 고려해 청년층의 가족동반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에 대해서 실증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며 특히,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목표로 운영된 혁신도시 정책사례를 토대로 기혼 청년층의 가족동반이주에 영향을 미친 동기요인에 대해 탐색하고 있는 연구는 부재

한 실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채우고자 청년층의 가족 동반 유입과 청년층의 가족동반 정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상권역 내 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여 향후 혁신도시내로 청년층을 유입시켜 지속가능한 정주를 이끌어 내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 내 단일 행정구역에 입지하면서 신시가지형으로 조성된 대구·울산·경남 혁신도시에 초점을 맞춰 혁신도시로의 청년층의 가족동반 이주 및 정주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탐색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유입되었는지 혹은 비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유입되었는지의 유무와 청년층이 혁신도시내로 유입될 때 자녀유무에 따라 청년층의 가족동반 전입과 정주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세분화하여 비교분석 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로부터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2. 혁신도시정책의 가족동반 이주에 대한 논의

혁신도시를 새로운 시대의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거점으로 성장시키며, 지역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구의 유입 및 정착 그리고 혁신도시내로의 가족동반 이주가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이주나 가족동반이주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실증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우선 혁신도시정책 초기평가 단계에서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혁신도시내로 가족동반 이주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분석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국토연구원(2015)과 국회예산정책처(2016)의 연구에서는 자녀교육문제(46.6%), 가족 또는 배우자 직장문제(34.2%) 순으로 가족동반 이주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수도권에서 생활하던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주여건이 조성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의 혁신도시 이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혁신도시내의 공공서비스제공(예:재난범죄안전)에 대한 만족도와 조직몰입의 정도가 높을수록 혁신도시내에 이주하여 정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황윤원 외 2014), 류형철 외 (2012)의 연구에서는 편의 교육시설 교통편의에 대한 불만족이 혁신도시내로 이주 및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경우 비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주가 이뤄진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을 동반하여 이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혁신도시정책과 가족동반이주율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기존의 선행연구 중 김형우(2017)의 연구에서는 혁신도시가 기존도심에 더 가까이 입지할수록 가족동반이주율이 상승한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혁신도시내로 가족동반이주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와 기존도시와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오이정(2019)의 연구에서는 아파트 및 주택 등의 주거환경은 가족동반이주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으로 특히 혁신도시 내 아파트가격 시세가 상승하는 환경은 혁신도시 내로 가족동반이주를 이끌어 내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범죄, 재난,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은 가족동반이주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전공공기관 종사자가 혁신도시로의 정착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제도의 유무는 가족동반이주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그 중요도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는 보육시설이나 초등·중등·고등 교육시설환경을 강력한 중요도를 내포하고 있는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천지은 외(2019)의 연구에서 또한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들의 지역착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메니티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비가족동반이주를 경험한 집단에 비해 가족동반이주를 경험한 소속직원들이 어메니티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집단 역시 가족동반이주한 경우가 비가족동반이주한 집단에 비해 어메니티에 대해 더 큰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령인구의 자녀유무에 따라 지역내 어메니티 인식에 대한 만족도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창조인재를 혁신도시지역으로 유입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메니티 인식과 그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는게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선행연구자료를 살펴보면 박관아 외(2020)의 연구에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는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에 비례하여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종사자 개인이 이주를 선택하지 않고 실업을 선택하는 기회비용이 보수가 높은 기관일수록 크게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논문에서는 수도권과 이전지역 간의 거리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혁신도시 내 이주에 상반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가 먼 장거리는 출퇴근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혁신도시 내로의 이주 정착률을 이끌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주 혹은 가족동반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로 가족과 함께 유입된 기혼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족동반이

주 및 정주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했으며, 도출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혁신도시내에 지속적으로 청년인구를 유입시키고 머무르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III. 분석의 방법

#### 1. 분석단위 및 분석방법

##### 1) 분석의 단위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도시내 신지가지형으로 개발된 혁신도시 사례에 해당되는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결혼하여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이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되는 기혼 청년층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 내에서도 신지가지형으로 개발되었지만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에 동시다발적으로 분리되어 다수의 행정구역에 입지하고 있는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산혁신도시 사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혁신도시 사례에 초점을 맞춰 혁신도시로의 청년층의 가족동반 이주 및 가족동반 정주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 전입 이전 거주지역이 수도권이면서 자녀가 존재하는 청년층의 가족생활주기적인 특성이 혁신도시로 전입하여 지속적으로 정주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이 혁신도시로 가족을 동반하여 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전입하여 지속적으로 정주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베이조사로 설계되어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설문대상은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이었으므로 해당지역(대구/울산/경남)과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작위 할당표집방법(quota sampling)을 사용하여 표집되었으며, 응답자료는 2023년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훈련된 전문조사원을 통해 수집되었고 회수된 전체 설문지 340매 중 답변

이 부실한 20매를 제외하고 총 320명의 응답 중 결혼유무와 전입유무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에서 종사중인 결혼한 청년층 총 156명의 응답과 결혼이후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전입을 완료한 청년층의 총 135명의 응답이 사용되었다.

〈표 1〉 분석대상 표본 수

(단위: 명)

경상권역	혁신도시 유형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에서 종사중인 청년층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에서 종사중인 결혼한 청년층	결혼이후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전입한 청년층
대구혁신도시	신시가지형	108	52	45
울산혁신도시	신시가지형	106	52	45
경남혁신도시	신시가지형	106	52	45
표본수 총합		320	156	135

## 2) 분석의 모형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 내 단일 행정구역에 입지하면서 신시가지형으로 조성된 대구·울산·경남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가족동반 유입과 청년층의 가족동반 정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동기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해서 허들모형(hurdle model)을 사용하였다. 혁신도시 거주중인 청년층 가운데 혁신도시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고도 1주 평균 3-4일을 혁신도시에서 생활하는 경우와 혁신도시 내로 전입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여전히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혁신도시마다 청년층이 실제로 전입하여 정주하고 있는 실정이 상당히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임태경, 20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확률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을 경우 추정된 회귀계수의 값에 편향(biased)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Wooldridge, 2019) 허들모형의 방법론을 채택하여 추정량을 도출하였다.

허들모형은 종속변수가 0에서 1로 변화하는 것과 1에서 2로 변화하는 것이 절대적 값의 변화 크기는 동일하지만(봉강호 외, 2020), 이는 실제 유사한 현상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 접근하는 모형으로써(Cragg, 1971) 이항분포에 대한 로지스틱 모델(logistic model)과 양의 정수로 관측되는 카운트모델(count model)이 결합된 2부분 모형(two-part model)으로 추정되는 방법론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적용한 허들모형 추정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Cragg, 1971).

$$Y_i = s_i h_i^* \tag{1}$$

위의 (1)의 추정식에서  $Y_i$  는 0 또는 0보다 큰 값으로 관찰되며  $s_i$ 는 로지스틱 모델에 대한 함수를 뜻하며,  $h_i^*$  는 카운트모델에 대한 함수를 뜻한다. 로지스틱 모델은 다시 (2)의 추정식으로 설명되며, 여기서  $s_i$ 는  $Y_i = 0$ 일 때 0이고  $Y_i > 0$  일 때 1의 값을 갖는다. 또한  $Z_i$ 는 설명변수들의 벡터를 의미하며 설명변수는 청년특성, 주택점유형태,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 출퇴근환경에 대한 만족도,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의료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었고,  $\gamma$  는 회귀계수의 벡터,  $e_i$ 는 오차항을 뜻한다.

$$s_i = \begin{cases} 1 & \text{if } Z_i\gamma + e_i > 0 \\ 0 & \text{otherwise} \end{cases} \tag{2}$$

또한 (3)의 추정식은 카운트모델 파트를 설명하고 있으며  $h_i^*$  는 다시 선형모형(linear)과 지수모형(exponential)으로 구분되며 여기서  $X_i$  는 설명변수들의 벡터를 의미하고 설명변수는 청년특성, 주택점유형태,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 출퇴근환경에 대한 만족도,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의료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beta$  는 회귀계수의 벡터를 뜻하며  $\nu_i$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begin{aligned} h_i^* &= X_i\beta + \nu_i \\ h_i^* &= \exp(X_i\beta + \nu_i) \text{ (exponential)} \end{aligned} \tag{3}$$

본 연구에서는 추정식(2)를 통해 청년층의 혁신도시로의 가족동반 전입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탐색하였고, 추정식(3)을 통해 혁신도시로 청년층이 가족과 함께 전입한 후 그들의 정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분리하여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시말해 추정식(2)를 통해 도출한 분석결과를 [모형1]의 실증분석결과로 활용하였고, 추정식(3)을 통해 도출한 분석결과를 [모형2]의 실증분석결과로 활용하여 청년층의 혁신도시로의 가족동반 전입유무 및 정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 2. 변수의 선정,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 1) 종속변수와 선정근거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에 해당되는 청년층의 가족동반 혁신도시 거주이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우선, 허들모형중에서도 로지스틱 모형에 사용된 종속변수로서 결혼한 청년층의 혁신도시로의 가족동반 전입유무를 주요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라는 문항에 '예'로 응답한 청년들 가운데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가족께서는 현재 혁신도시로 주민등록을 모두 이전하셨습니까?' 라는 문항에 '혁신도시로 주민등록을 모두 이전하였다' 라고 응답한 청년을 1의 값으로 코딩하였으며, '혁신도시로 주민등록을 모두 이전하지 않았다' 라고 응답한 청년을 0의 값으로 설정하였다. 다시말해 혁신도시로 가족과 함께 전입하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혁신도시로 가족과 함께 전입한 경우에는 1의 값으로 입력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로 가족과 함께 전입한 청년층이 전입한 이후 혁신도시 내에 정주하고 있는 기간에 영향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 허들모형 중에서도 카운트 모델파트에 해당되는 종속변수로서 청년이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전입한 이후 혁신도시내에 거주한 총 기간의 합(단위: 년)으로 산출되었다.

### 2) 독립변수의 선정근거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청년특성, 주택점유형태,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 출퇴근환경에 대한 만족도,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의료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우선 같은 청년세대 일지라도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이동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 선행연구결과를 반영하여 (Rossi, 1955; Lansing et al., 1957) 본 연구에서도 자녀유무와 혁신도시 이전 거주지역에 해당되는 특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현재 자녀의 교육과정은 무엇입니까?' '귀하께서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 거주하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라는 설문질문에 응답한 값을 더미변수화 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는 1로, 그 밖의 경우는 0의 값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측정하였으며, 혁신도시 이전 거주지역이 수도권일 경우 1로 그 밖의 경우는 0의 값으로 더미변수화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동시에 청년특성에 해당되는 자녀유무와 혁신도시 이전 거주지역간의 상호작용항을 활용하였는데, 혁신도시 이전 거주지역이 수도권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는 1로, 그밖의 경우는 0의 값으로 더미변수처리화 하여 청년특성에 관련된

또 다른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다.

또한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주거이동은 주거에 대한 이동비용과 주거이동에 따른 편익을 비교했을 때 주거이동에 따른 편익이 클 경우 주거이동을 결정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이중희, 2004), 특히 거주하고 있는 주택점유형태가 자가소유일 때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시세가 상승하는 주거환경은 이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오이정, 2019). 따라서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택점유형태에 관련된 변수를 측정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하였고, 구체적으로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자가소유로 응답한 경우는 1로, 그 밖의 경우는 0의 값으로 측정하여 해당변수로 활용하였다.

동시에,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혁신도시내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가족동반이주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2017)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가활동에 관련된 정주환경이 혁신도시에 정주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은 어메니티 수준이 높은 곳으로 이동해 가는 경향이 있고 특히 지역의 문화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유입하여 거주하고 싶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박순철·도수관, 2023).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주환경에 만족도에 관련된 변수를 측정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설문질문에 5점 척도로(매우불만족=1에서 매우 만족=5)로 나누어 측정된 값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선행연구에서는 청년인구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전입 및 정주를 선호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실정과(민보경, 2023), 혁신도시 사례의 경우 교통환경 분야에 대한 높은 불만족이 혁신도시로의 이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류형철 외 2012) 본 연구에서도 교통인프라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출퇴근의 시간·경제적 비용에 대한 교통환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에 대해 매우 불만족=1에서 매우 만족=5까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측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로의 가족동반이주율은 교육여건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형유, 2017). 교육여건을 측정하는 지표는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김근영(2001)의 연구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교사당 학생수, 사교육비를 교육여건에 관련된 변수로 활용했으며, 윤병호(2009)의 연구에서는 사교육 기관 수를 교육여건에 대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3개의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교육환경을 측정하였으며 그 중 첫 번째로 ‘혁신도시의 사설학원에 대한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둘째 ‘초등·중등·고등 교육시설 환경에 대한 만족도’ 셋째 ‘돌봄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5점척도(매우불만족=1에

서 매우 만족=5)로 측정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끝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용이성이 언급되고 있으며(김병석·이동성, 2021), 혁신도시 사례의 경우 의료시설에 관련된 편의시설의 도입이 필수적으로 고려되는게 혁신도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언급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정유선, 2019) 본 연구에서는 의료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총 2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및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와 ‘상급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만족도를 5점척도(매우불만족=1에서 매우 만족=5)로 측정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다음의 <표 2>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조작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변수의 조작화

구분	변수	변수의 조작화
종속변수	청년층의 가족동반 전입유무 및 정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이 가족동반하여 혁신도시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유무</li> <li>• 청년층이 가족동반하여 혁신도시로 전입한 이후 정주한 기간 (단위: 년)</li> </ul>
청년의 특성	혁신도시 이전 거주지역(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도시 이전 거주지역이 수도권일 경우=1</li> <li>• 그 밖의 경우 =0</li> </ul>
	자녀유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 이후 자녀가 있는 경우=1</li> <li>• 그 밖의 경우 =0</li> </ul>
	상호작용효과 (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도시 이전 거주지역과 자녀유무 간의 상호작용</li> </ul>
주택점유형태	주택점유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점유형태가 자가소유일 경우 =1</li> <li>• 그 밖의 경우 =0</li> </ul>
정주환경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주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li> </ul>
출·퇴근환경	교통인프라환경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퇴근 시간 경제적 비용에 대한 만족도</li> </ul>
교육환경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도시의 사설학원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li> <li>• 초등·중등·고등 교육시설 환경에 대한 만족도</li> <li>• 돌봄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li> </ul>
의료환경	의료환경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및 편의성에대한 만족도</li> <li>• 상급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li> </ul>

## IV. 실증분석 결과

### 1. 표본의 특성

다음의 <표 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각의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결과값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 경상권역 내 단일 행정구역에 입지하면서 신시가지형으로 개발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혁신도시 사례에 해당되는 지역에 결혼하여 가족과 함께 이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층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도출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이전 시점에 거주했던 지역이 수도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표본 전체의 79.4%로 나타났으며,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이주할 당시 자녀가 있었던 청년층의 비중은 85.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결혼하여 혁신도시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청년층 중 주택의 점유형태가 '자가소유'로 나타난 비중은 표본 전체의 57%로 나타났으며, 가족과 함께 동반하여 혁신도시로 이주 후 주민등록을 혁신도시로 전입한 비율은 표본 전체의 86.5%로 확인되었다. 동시에 가족과 함께 동반하여 혁신도시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이후 혁신도시내에 정주한 기간은 최대 9년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구, 울산, 경남에 위치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가족동반 혁신도시 거주이전 의견조사를 통해 나타난 표본의 만족도 특성을 살펴보면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32점으로 나타났으며 출퇴근 시간·경제적 비용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4.07점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혁신도시 사설학원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5점만점에 3.474점, 초등·중등·고등 교육시설 만족도의 평균은 5점만점에 3.484, 돌봄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403으로 나타나 항목 간 높지 않은 수준에서 대체로 비슷한 만족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의료환경에 대한 표본의 만족도 중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및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006점으로 나타났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접근성 및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666점으로 나타나 가장 낮은 만족도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표본의 특성

변수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족동반 주민등록 전입유무	156	0	1	0.865	0.342
전입이후 가족동반 정주기간(단위: 년)	156	0	9	3.166	2.245
혁신도시 이전 거주지역	156	0	1	0.794	0.405
자녀유무	156	0	1	0.852	0.355
주택점유형태	156	0	1	0.570	0.496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	156	1	5	3.320	0.770
출퇴근 시간경제적 비용에 대한 만족도	156	1	5	4.070	0.957
혁신도시 사설학원 교육환경 만족도	156	1	5	3.474	0.838
초등·중등·고등 교육시설 만족도	156	1	5	3.487	0.853
돌봄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156	1	5	3.403	0.809
병원 약국 접근성 편의성 만족도	156	1	5	3.006	0.967
상급종합병원 접근성·편의성 만족도	156	1	5	2.666	0.998

본 연구는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활용된 변수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모든 변수는 0.4 이하의 상관계수 값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활용된 변수들 간의 선형관계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들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에 가까워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Wooldridge, 2003).

## 2. 허들모형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

다음의 〈표 4〉는 기혼 청년층의 혁신도시 가족동반 전입과 정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청년층이 유입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과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유입된 청년층이 오랫동안 정주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비교·분석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19세이상 39세이하 결혼한 청년들을 분석대상으로 도출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혁신도시 개발정책이 수도권으로부터 이주한 청년층의 가족전입 및 지속가능한 정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차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추정(post-estimation)으로서 모형설정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Ramsey Reset 검정을 수행한 결과 누락변수(Omitted variables)에 의한 모형설정의 오류

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Gujarati & Poter, 1999) 또한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검정을 수행한 결과 허들모형에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avin, N. E. et al., 1977)<sup>5)</sup>. 보다 구체적인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청년층이 혁신도시로 가족동반하여 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전입하여 정주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살펴본 결과 자녀가 있는 가정일수록 자녀가 없는 가정보다 혁신도시 내로 전입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자녀가 있는 청년층 가정일수록 자녀가 없는 가정에 비해 전입한 이후 혁신도시 내에 정주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유의수준 1%와 10%에서 각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가족동반 전입모형에서는 음(-)의 회귀계수 값과 가족동반 정주기간 모형에서는 양(+의 회귀계수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 전입 이전 거주지역과 자녀유무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해당되는 결합효과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로 전입하기 이전 거주지역이 수도권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경상권역 내 혁신도시로 청년층이 가족과 함께 전입할 확률이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5%에서 음(-)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녀가 있는 청년층의 가정일 경우 종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로 이전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가족전체가 함께 직주근접을 위해 혁신도시내로 전입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자녀와 배우자는 수도권에, 다른 한명은 혁신도시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주말에 다시 가족이 만나는 ‘주말부부’로서의 새로운 가족형태가 더 많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가족동반이주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실정과 맥락을 같이한다<sup>6)</sup>. 하지만, 흥미롭게도 혁신도시 전입 이전 거주지역과 자녀유무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가족동반 정주기간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함께 경상권역 내 혁신도시로 전입한 청년층의 경우 주택점유 형태가 ‘자가’일수록 그들의 정주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양(+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년층의 자가 소유는 주거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정착에 영향력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박종훈·최도형(2023)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하지만 예상한대로, 본 연구에서는 자가 소유 여부와 청년층의 가족동반 전입과의

5) 본 논문에서는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활용된 변수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604#0BNb>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정주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퇴근 시간 경제적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가족을 동반하여 청년층이 혁신도시내로 전입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5%에서 모두 인과관계가 존재하였다. 우선 이러한 분석결과는 출퇴근환경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권역으로부터 거리가 먼 대구 울산 경남 혁신도시로 출·퇴근하는데 있어서 교통수단의 불편함이 클수록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 내로 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시에 출퇴근시간과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불만족이 클수록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교적 출퇴근이 용이한 혁신도시내로 전입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임태경(2024)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기도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및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을 동반하여 청년층이 혁신도시내로 전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역시 유의수준 5%에서 양(+)의 회귀계수 값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년층의 주거이전은 어메니티 형성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주미진, 2012, 오은주, 2015, 주민진·서원석, 2017, 천지은·박정민·김민곤, 2018). 반면에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동반 청년층의 전입유무와의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년층의 가정일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과정에 있는 자녀보다는 미취학 아동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시설에 관련된 어메니티 시설보다는 병원이나 약국에 관련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주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동시에 돌봄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청년층의 가족동반 정주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10%에서 각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19세이상 39세이하 결혼한 청년층의 경우에는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면 비수도권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으로 유입되어 오랫동안 정주하는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동시에 전입한 지역에 돌봄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어 이러한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정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시말해 가족동반 청년층의 경우 혁신도시내에 '자가소유'의 형태로 정주하면서 자녀가 있고 정주환경과 돌봄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면 그 지역으로 유입되어 오랫동안 정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겠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을 결혼하여 혁신도시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있는 자녀보다 미취학 아동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돌봄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혁신도시 내의 정주기간 간의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도출되었다고 예측해 볼 수 있지만 향후 돌봄 환경의 개선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교육정책을 마련하여 초등 중등 고등 교육 서비스 수준과 기회가 혁신도시 정착민들에게 만족스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구축정책사업이 중·장기 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의료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출퇴근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청년층의 가족동반 정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작동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청년층의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구분	변수	[모형1] 가족동반 전입모형 [Logistic Model]	[모형2] 가족동반 정주기간 모형 [Count Model]
청년특성	혁신도시 이전 거주지역이 수도권일 경우=1, 그 밖의 경우=0	-0.615 (1.480)	-0.926 (0.968)
	결혼 이후 자녀가 있는 경우=1, 결혼 이후 자녀가 없는 경우=0	-2.344*** (0.838)	0.342* (0.203)
	혁신도시 이전 거주지역이 수도권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1, 그 밖의 경우=0 (상호작용효과)	-0.355** (1.640)	0.965 (0.975)
주택점유형태	현재거주하고 있는 주택점유형태가 자가소유=1, 그밖의 경우=0	-0.230 (0.643)	0.271*** (0.111)
정주여건	정주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264** (0.633)	0.159* (0.096)
출퇴근환경	출퇴근 시간 경제적 비용에 대한 만족도	-0.817** (0.340)	0.005 (0.058)
교육환경	혁신도시의 사설학원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0.033 (0.662)	0.120 (0.097)
	초등 중등 고등 교육시설 환경에 대한 만족도	-0.503 (0.663)	0.004 (0.004)
	돌봄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0.099 (0.628)	0.050* (0.093)
의료환경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및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	1.157** (0.490)	-0.018 (0.072)
	상급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	-1.055 (0.494)	-0.118 (0.069)
Constant		7.624*** (1.982)	0.304*** (0.400)
Observation		156	135

\* p<0.1, \*\* p<0.05, \*\*\* p<0.001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 내 단일 행정구역에 입지하면서 신시가지형으로 조성된 대구·울산·경남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가족동반 유입과 청년층의 가족동반 정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동기요인이 무엇인지를 세분화하여 비교분석 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로부터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가족동반 혁신도시 유입에 가장 영향력 있게 작동되고 있는 동기요인이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및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 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청년층이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전입한 이후 혁신도시내에 오랫동안 정주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게 작동되고 있는 동기요인은 '자가소유' 형태로서의 주택점유형태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족과 동반한 청년층을 혁신도시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의료, 금융, 문화시설 등 민간의 편의시설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으며 청년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요인을 중심으로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자가소유'로서의 주택점유형태 일수록 혁신도시에서 가족동반 청년층이 오랫동안 정주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지하고 있듯이, 혁신도시 내에서 가족이 있는 기혼의 청년층을 고려한 주거정책 수립이 다양하게 마련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주거 사다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자가 소유 달성을 직·간접적인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출·퇴근시간 및 경제적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가족을 동반하여 청년층이 혁신도시내로 전입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장거리가 존재하는 부산 울산 혁신도시의 경우 이러한 장거리가 주민들의 정착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는 선행연구결과와 일부 맥락을 같이 하지만(박관아 외, 2020) 동시에 경남, 대구, 울산 혁신도시의 경우 수도권에 본래 거주지를 두고 평일에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과의 출퇴근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혁신도시 내에 거주하다가 금요일 오후 서울을 오가는 통근버스를 이용해 주말동안 혁신도시를 떠나 수도권에 있는 가족과 만나는 '주말부부'로서의 새로운 가족형태의 증가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가족동반정착의 증가보다는 이러한 주말부부의 증가는 주말에 사람이 없는 혁신도시를 발생시켰고 이는 지역내에서 상권의 비활성화로 이어져 수도권과 버금갈 정도의 도시 인프라가 혁신도시내에 형성되는데 많은 어려움으로 작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수도권에 가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정주여건 인프라'가 손꼽히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해결하기 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단일부처 또는 지자체의 단일 부서가 단일 사업 수행으로 해결하는 접근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세밀한 대책을 수립하는게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혁신도시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정주여건 직접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민간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에서 가족 전체 이주자 가족의 현지생활 적응을 위한 차별화된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것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가족동반하여 혁신도시내로 전입한 이후에 지속가능한 정주를 이어가는데 비교적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요인이 돌봄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층의 가정일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과정에 있는 자녀보다는 미취학 아동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이들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에서는 혁신도시에서만 제공되는 차별화된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보여준다.

이상의 추정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음을 드러낸다. 먼저 본 연구는 대구혁신도시, 울산혁신도시, 경남혁신도시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분석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동시에 경상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혁신도시라 할지라도 인구규모 등의 차이를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실증분석 결과값을 도출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언급될만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혁신도시별 입지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층 혹은 청년층의 가족동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및 패널분석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안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내로 청년층의 인구유입과 지역정착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정우·이주림·구자훈. (2023). 대도시 및 중소도시 입지별 혁신도시의 청년인구 유입효과 비교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5(2): 45-68.
- 권정표·박광수. (2023). 청년 1인 임차가구의 거주지 이동의향에 관한 연구: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16(4): 51-72.
- 권정표. (2022). 「청년 1인가구 임차인의 주거만족도 및 주거이동의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 김경수·임하경. (2011). 동남권의 도시규모별 지역간 주거이동 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46(3): 37-46.
- 김근영. (2001). 서울시 지역별 초등학교 교육여건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3(3): 213-232.
- 김민곤·박지형·송용찬. (2017).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1(4): 335-366.
- 김병석·이동성. (2021). 노인 1인가구의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노인가구와 일반가구 비교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19(3): 349-360.
- 김현우·강명구. (2020). 삶의 자기결정권 선호에 따른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의 인구이동 특징.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2(5): 49-77.
- 김형우. (2017). 「혁신도시 지역특성 및 이전기관 조직특성이 가족동반이주율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류형철·신우화·신우진. (2012).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0(2): 317-333.
- 민보경. (2023).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신뢰와 행복. 「한국인구학」, 46(4): 107-137.
- 박관아·정창무·김현정. (2020).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 목표 달성률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국토계획」, 55(4): 59-69.
- 박순철·도수관. (2023).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요인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7(2): 309-346.
- 박종훈·최도형. (2023). 자가 소유 지표 변화를 활용한 청년 주거 안정의 다차원적 연구-연령-주거이주를 고려한 실증 분석과 정책 제안. 「부동산분석」, 9(3): 151-178.
- 봉강호·김수민·박재민. (2020).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혁신투자 결정요인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23(1): 140-161.
- 서인주. (2012). 생활주기(life cycle)에 따른 소비성향 및 주거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85-101.

- 신정철·안영수·이승일. (2019). 서울시 가구주 연령대별 주거이동거리 변화 실증분석: 2005-2015년. 「국토계획」, 54(1): 118-130.
- 엄현태·우명제. (2014). 교외지역 신시가지 개발이 중심도시의 구시가지 쇠퇴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토계획」, 49(5): 51-66.
- 오은주. (2015). 지식기반산업 창조인재의 지리적 이동성에 관한 연구: 예술인력, IT 인력,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50(6): 225-240.
- 오이정. (2019)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
- 이중희. (2004). 「주택경제론」. 서울: 박영사.
- 임태경. (2023). 인구감소시대 혁신도시 개발정책의 인구 분산효과에 대한 논의: 수도권·비수도권·같은 권역내 청년인구 순유입효과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6(4): 235-259.
- 장욱·김경수. (2001). 부산인접도시 택지개발지의 가구이동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36(2): 45-73.
- 정유선. (2019). 「신도시형 혁신도시 유입가구의 특성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광주전남혁신도시, 전분혁신도시 사례를 대상으로」. 국토연구원, 보고서번호 WP 19-13.
- 주미진·서원석. (2017). 대도시 인적자원의 창조성에 따른 주거환경 특성연구-서울의 창조 및 비창조계층 비교를 중심으로. 「주택도시연구」, 7(1): 121-136.
- 천지은·김민곤·박정민. (2018). 청소년의 정치인식과 사회자본 수준에 대한 연구: 청소년 참여·운영위원회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2(3): 101-127.
- 천지은·김민곤·박정민·이용규. (2019). 창조인재의 지역착근을 위한 어메니티 연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재직자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3(1): 247-277.
- 황운원·임장근·송용찬. (2014).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의 지역통합방안 연구: 정주이사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8(4): 141-163.
- Qin, P., Mortensen, P. B., & Pedersen, C. B. (2009). Frequent change of residence and risk of attempted and completed suicid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6(6): 628-632.
- Savin, N. E., & White, K. J. (1977). The Durbin-Watson test for serial correlation with extreme sample sizes or many regressors.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1989-1996.
- Wahl, H. W., Iwarsson, S., & Oswald, F. (2012). Aging well and the environment: Toward an integrative model and research agenda for the future. *The Gerontologist*, 52(3): 306-316.
- Wooldridge, J. M. (2019). Correlated random effects models with unbalanced panels. *Journal of Econometrics*, 211(1): 137-150.

Wooldridge, J.M. (2003). Cluster-Sample Methods in Applied Econometrics. *American Economic Review*, 93: 133-139.

---

**임 태 경:** Cleveland State University에서 도시 및 공공정책학 박사(Ph.D. in Urban Studies and Public Affairs, 2017)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사학위 논문은 “Multilevel Governmental Efforts for Energy Efficiency: Policy Adopti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under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며,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지방재정, 및 지역발전 정책 등이다. 최근의 논문으로 “The Impact of Intergovernmental Grants on Innovation in Clean Energy and Energy Conservation: Evidence from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Energy Policy, 2021)” 등이 있다(Email: tklim@kmu.ac.kr).